

세 개 파출소 모두 파룬궁을 박해할 '안건'을 받지 않는다

(밍후이왕 통신원 대륙 종합보도) 15년 동안 파룬궁수련생이 지속적으로 진상을 알리고, 반박해를 견지하여 갈수록 많은 세인이 중공의 '가짜, 악, 투쟁'으로 파룬궁수련생을 박해한 진상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다. 일찍 박해에 참여했던 공, 검, 법 인원을 망라한 많은 사람들이 정의 쪽에 서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아래에 허베이성에서 전해온 소식을 적는다.

세 개 파출소 모두 박해에 참여하지 않으려 하다

2014년 8월 11일 밤 11시, 허베이 모 시 2명의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자료를 배포하다가 악인에게 고발당해 근처 A 파출소의 경찰에 납치당했다. 그 파출소의 경찰은 파룬궁이 박해 받는 진상을 알고 있는데다가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이 끊임없이 진상을 알리고 선(善)을 권하자 사건 담당 경찰은 두 파룬궁수련생이 진상을 알린 장소가 인근 B 파출소 관할지역이라는 이유로 두 파룬궁수련생을 B 파출소에 넘겨 그들이 알아서 처리하게 했다.

B 파출소는 사람을 넘겨받은 후, 역시 이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 두 명의 파룬궁수련생의 집이 C 파출소 구역이라는 이유로 두 수련생을 C 파출소에 넘겼다. C 파출소는 앞의 두 파출소에서 모두 상관하지 않으니 우리는 더욱 상관하지 않는다면서 아예 두 사람을 집으로 보내 버렸다. 지금 그 시의 많은 경찰은 모두 누가 마음을 닦으며 선량한 사람으로 되는 파룬궁을 박해하면 꼭 죄책을 지

고 죄악을 갚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므로 기층의 경찰은 모두 파룬궁 박해에 손대길 원치 않는다.

110 경찰은 신고를 받고도 출동하지 않다

소린(小琳)은 법을 금방 얻은 파룬궁수련생이다. 그녀의 남편은 중공 매체의 거짓에 속아 진상을 모르고 있었다. 2013년 하반기, 남편은 그녀의 가방에서 파룬궁 진상자료를 발견하고 노발대발하면서 화풀이로 아내의 제지도 마다하고 아내의 동료인 파룬궁수련생 화렌을 직접 110에 신고했다. 그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은 남편은 또 다시 전화로 경찰이 사람을 잡아갔는지를 확인했다. 전화를 받은 경찰은 "거리가 너무 멀어 이미 현지 파출소에서 책임지도록 전화를 했다"고 말했다. 이튿날 소린은 직장에서 화렌을 만났고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파출소경찰은 아예 오지도 않았던 것이다. 원래 110 경찰은 진상을 알고 있었으므로 전혀 이 일을 상관하지 않았고 그런 말로 발뺌을 했던 것이다.

지도원이 1만 위안을 되돌려 주다

그 시의 파룬궁수련생 소영(小英)은 2012년 초에 현지 파출소 지도원 등 경찰에게 납치당했고 후에는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파출소 지도원 등 경찰은 납치과정에 소영의 집에서 수색해 낸 1만여 위안의 돈을 나누어 가졌다.

2014년 말, 소영은 출옥한 후 직접 파출소에 가서 지도원을 찾아 파룬궁 진상을 알리고 3년 전에 그들이 강탈해 갔던 1만여 위안을 돌려달라고 했다. 지도원은 기세

사납게 "당신은 당신 쪽 사람들에게 나에게 전화를 그만하라고 말해 줄 수 없어? 나 이제 막 미칠 것 같아! 나 살 수가 없어! 밤새 잠을 잘 수 없어....."라고 외쳤다.

소영은 조용히 "당신은 당신이 사람을 거느리고 나를 잡아갈 때 얼마나 많은 나의 친척이 밤을 지새우며 괴로움을 당했는지 아세요? 내가 감옥에서 1000여 날의 밤과 낮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라고 말했다. 나중에 이 지도원은 조사해 보겠다고 대답했다.

얼마 안 되어 그는 당시 사사로이 삼켜 버렸던 1만여 위안의 돈을 소영에게 돌려주었다. 그 때 그의 얼굴에는 즐거운 기색이 돌았다.

박해에 참여한 자의 뉘우침

2014년 7월, 그 지역의 파룬궁수련생이 핸드폰으로 '파룬궁 박해 추적조사 국제조직'에서 조사하는 현지 악인 명단을 발송해 보냈는데 아주 빨리 반응이 있었다. 예를 들면, 조사받게 될 현지 두 명은 주동적으로 알고 있는 파룬궁수련생을 찾아와 더는 박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표명하고 그 중 한 사람은 탈당했고 앞으로 더는 나쁜 일에 동조하지 않고 대법을 지지하겠다고 했다.

다른 한 조사받게 될 사람은 MMS를 받은 후, 이미 저지른 모든 폭행이 이미 국제조사에 추적조사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종일 당황과 불안 속에 잠기게 됐다. 하여 주동적으로 그가 알고 있는 파룬궁수련생을 찾아가 속죄하고 더는 박해에 참여하지 않을 것을 표시했다. ◇

◆ 길림성 연변 훈춘시 파룬궁수련생 성련화 납치되다

2015년 1월 31일 오후, 훈춘시 파룬궁수련생 성련화(녀, 조선족, 60여세)는 사람들에게 진상을 알리다 악인에게 고발당해 경찰에 납치되었다. 그날오후 공안국 국보대대 악경들은 성련화의 집에 들이닥쳐 불법으로 파룬따파 서적 등 개인 물품을 강탈하고 집 식구를 강박하여 구치증에 서명하게 했다. 현재 성련화는 불법으로 구치소에 감금 당하고있다.

◆ 길림성 연변주 연길시 리호철이 중형에 직면

길림성 연변주 연길시 파룬궁수련생 리호철은 2014년 10월 7일에 납치되어 연길시 구치소소에서 박해 받고있다. 소식에 의하면 연길시 법원에서는 불법으로 중형 판결을 하려 한다.

중국 공군 원로: 파룬따파는 진정한 과학이다

[밍후이왕] 중국 공군 원로인 위창신(于长新)은 공군지휘학원 정군직 교수이다. 비행기술, 공군훈련과지휘방면에 모두 뛰어나며 ‘중국공군비행수첩’ ‘규칙기술수첩’을 저술했다. 위교수는 1992년부터 파룬따파를 수련했다. 중공이 공개적으로 박해하기 전(1999년 5월)에 장쩌민은 그를 지명하여 중점으로 박해했다

위교수는 박해자들에게 “나는 74세 노인으로서 중국 첫 번째 시험 조종사이자 2등 공신입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교과서는 내가 주필하고 최종 원고를 정했습니다. 자격을 말하자면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그 누구보다 더 높습니다. 이런 사람이 무엇을 쉽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직접 수련해본 체득이 나를 알려주었는데 파룬따파는 진정한 과학입니다.”라고 정중하게 말했다. ◇

도판: 2015년 원단, 대만 대중 파룬공수련생들이 시정부광장에서 연공



길림성 파룬공수련생 왕리제가 박해 받은 과정 (간략)

[밍후이왕] 나는 왕리제(王麗杰)라고 부른다. 아래는 내가 중공경찰에게서 받은 박해 과정이다.

2011년 8월 5일, 한 무리 경찰들이 서명이 없는 한 장의 수색증명서를 가지고 와 불법으로 나의 집을 마구 뒤집었고 나를 물건과 함께 돈화시 민주가파출소로 납치해갔다. 내가 호구지점을 대지 않으니 경찰 정따웨이는 나의 얼굴을 좌우로 때려 얼굴이 부어나고 마비되었다. 저녁에는 파출소소장 왕젠핑이 4, 5대의 불을 단 권련연기로 나를 쏘여 나는 숨쉬기도 힘들었다. 후에는 정따웨이와 왕젠핑은 윤번으로 나의 손, 몸, 다리, 발가락에 전기충격을 가했다. 감방은 피부가 탄 냄새로 가득 찼다. 경찰 순동건은 강박으로 나더러 다리를 굽히고 두 손을 들고 서있게 했는데 다리를 펴면 발로 차 구부려 놓았는데 나의 얼굴은 온통 땀투성이 되었다. 그 후 그들은 또 나를 호랑이 의자에 묶어 놓았다.

다음 날 오후, 그들은 나를 돈화시 구치소에 감금했다. 거기에는 7, 8명 파룬공수련생들이 두 감방으로 나누어져 감금되어 있었다. 구치소에서 나는 두 번의 불법심사를 받았다.

첫 번째 그들은 나더러 체포령에 서명하라고 했지만 나는 거절했다. 그러자 경찰 정따웨이는 나를 파출소로 끌고 와 고문실 문 앞에서 기를 쓰면서 나의 얼굴을 때렸고, 숨

이 차 싹싹거리면서 “너 불복한다 이 거지? 나는 이 껌질을 벗을 각오를 한다”라고 말하면서 문을 열고 나를 호랑이 의자에 앉히고 두 손을 채웠다. 또 장평이라는 경찰이 오더니 나의 머리채를 거머쥐고 오른쪽으로 함껏 당기자 경찰 정따웨이는 대형 전기공봉을 나의 문치에 대고 충격했다. 순간 머리로부터 심장에 이르기까지 찌르는 듯한 강렬한 아픔에 나는 신체를 구부린 채 벌떡 일어나 “사부님 구해주십시오”라고 큰소리로 외쳤다. 순간 두 악인은 즉시에 멈추었고, 당황한 정따웨이는 전기공봉을 버리고 호랑이 의자 위의 작은 책상 위에 있는 무슨 물건을 끊임없이 만지면서 “너의 사부는 너를 위해 피를 흘렸다”라고 말했고, 장평은 황급히 문을 박차고 나갔다. 후에 정따웨이는 나의 맞은편에 있는 걸상에 쓰러져 나를 향해 머리를 숙였다. 나는 침착하게 “너희들은 때리기도 했고, 욕도 했는데 또 어쩔 셈인가?”라고 물었다. 그는 나가더니 한 장의 표를 갖고 왔다. 나는 “파룬공은 사교가 아니고 신앙이다.”라고 말했고, 그는 그대로 받아냈다.

그런 후 그들은 또 나를 구치소로 데려갔다. 구치소 앞 청에서 한 교도관이 나의 입이 아주 높이 부어난 것을 보고 정따웨이에게 “덕으로 사람을 복종하게 하라”고 격분해 말했다. 정따웨이는 머리를 떨군 채 아무 말

도 없이 나를 데리고 갔다.

두 번째 불법심사 때 나는 4일간 호랑이 의자에 묶여 있었다. 경찰은 3개 조로 나누어 나를 구타했다. 경찰 양모는 나의 옷에 물을 쳐 흠뻑 젖게 한 후 자체 체온으로 마르면 또 분무기로 물을 뿌어 젖게 했다. 내가 눈을 감기만하면 나의 앞에 앉아있는 경찰이 분무기로 물을 뿌었다. 그들은 또 검은 비닐주머니를 나의 머리에 싹뻑 질식하게 한 다음 7, 8알 구심완을 녹인 반 병의 물을 마이게 했다.

세 번째 날에 나는 양모에게 “네가 다시 물을 치면 나는 소리를 치겠다”고 하자 그는 즉시 나에게 물을 뿌었다. 나는 ‘파룬따파하오! (法輪大法好!)’하고 외쳤다. 그러자 그는 나의 뒤 걸상 위의 돛천으로 된 띠를 거머쥐고 함껏 나의 뒤 등을 쳤다. 하지만 내가 계속 외치자 그는 띠로 나의 얼굴을 치고 눈을 쳤다. 나는 눈앞이 캄캄해 났지만 그가 문을 박차고 나가자 또 ‘파룬따파하오!’하고 외쳤다. 이때 나의 몸은 모두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을 느꼈다. 경찰들은 내가 협조하지 않자 나의 핸드폰에서 다른 수련생들의 단서를 얻으려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하고 또다시 나를 구치소로 돌려보냈다.

그후 그들은 나를 불법으로 길림 여자감옥에 보내 계속 잔혹한 박해를 가했다.